

중국과의 섬유품 무역 마찰 문제에 합의한 EU -

가맹국의 승인이 과제

그 동안 문제였던 중국과 유럽 연합(EU)과의 중국 섬유품 무역 마찰 문제는 10개 섬유 품목에 대하여 수출 물량 신장률을 중국이 자율적으로 규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유럽 위원회(EC)와 중국의 상무부는 6월 10일 상하이에서 11시간 교섭한 끝에 합의된 사항을 6월 11일 각서로서 발표하였다.

EC의 발표에 의하면 이번 협의 결과는 한 번만의 포괄적인 합의로서 섬유 특별 세이프 가드(safe guard) 제도가 끝나는 2008년 말까지 유효한 내용이다. 합의에 있어서 쌍방은 EU와 중국 간의 섬유 무역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호혜호리(互惠互利 : 서로 돕고 서로 이익을 보기)의 원칙에 따라 섬유 무역 마찰 문제를 적절하게 조정하여 경제·무역 관계가 순조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각서에 담고 있다.

EC의 발표는 ① EU로의 중국 섬유품 수출의 성장은 2008년 말까지 관리할 것을 EU와 중국은 합의하였다. ② EU의 섬유 산업에게 경영을 조정하기 위한 시간을 주면서 2005~2007년 사이에 중국 섬유품의 대 EU 수출이 적절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 합의는 대비한다. ③ 이 광범위하며 균형이 잡힌 합의로 EU와 중국은 EU 생산자에게 조정 기간을 보증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게 예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EU 수입자와 소매업자에게 주고, 시장 자유화와 중국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구성원의 노력을 확보하기로 되어 있다.

교섭을 담당한 EU 책임자는 “이번 합의는 쌍방이 모두 공평하고, EU로 섬유

유품을 수출하고 있는 발전 도상국도 구제한다”고 말하고, EU, 중국 및 발전 도상국 모두 이익을 서로 나누는 “win-win-win의 합의”라고 평가하고 있다.

EC에게는 이 합의에 대한 EU 가맹국의 승인이 앞으로의 과제로 되어 있어, 합의 내용은 이미 가맹국에게 밝히고 있다. 이들 합의 내용은 많은 EU 가맹국에게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몇몇 가맹국의 수상과는 그 동안 밀접한 접촉이 있었으므로 최종적으로는 모든 가맹국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쿼터 프리 후에 중국의 섬유품 수입이 홍수처럼 급증하자 EC는 세이프 가드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4월 29일에는 T 셔츠, 스웨터, 남자용 바지, 블라우스, 양말, 여성용 오버코트, 브래지어, 아마사, 마 직물의 9개 품목에 대하여 토의 자료 작성을 위한 조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5월 27일에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므로 T 셔츠와 아마사를 정식으로 협의할 것을 중국에게 요구하였다.

중국은 대항 조치로서, 자주적인 규제를 위하여 많은 민감한 품목을 포함한 수출 관세 철폐 등으로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갔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쌍방의 비공식 협의는 계속되었다.

T 셔츠와 아마사에 대한 잠정적인 세이프 가드의 발동 기한이 다가온 10일에 이번 협의가 추진되어 합의를 보게 되었다.

10일의 협의에 앞서서 EU측은 6일 이태리 섬유 생산자를 위한 연설에서, 가급적 교섭에 의한 합의로 무역을 관리하기보다는, 변화와 조정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하고 섬유품 쿼터 시스템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업계에 의한 이해 관계의 대립뿐만 아니라, 나라마다 이해 관계가 달라 어려움을 안고 있는 EU로서 미묘한 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